“불타는 집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려면

지유 스님의 ‘수심결’ 특강 지상중계〈상〉

법문: 지유 스님(범어사 조실)
일시: 2008년 10월 21~24일
장소: 범어사 침계루

마음 닦는 요결(要訣)은 무엇일까? 만약 닦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 수록 깨달음의 본래자리에서 멀어진다면 어떻게 수행을 지어갈 것인가? 참선 수행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직면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지유 스님(범어사 조실)이 10월 21일부터 4일간 범어사 침계루에서 500여 사부대중에게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역작인 〈수심결(修心訣)〉에 대한 감로법문을 펼쳤다. 스님은 자상하고 경쾌한 어조로 선종 특유의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 하는 선지를 밝혔으며, 첨예한 돈점(頓漸)논쟁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한 해석을 내렸다. 〈수심결〉은 고려 중기 지눌 스님이 직지인심과 돈오점수, 정혜쌍수 등을 통해 일체 중생에게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불성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논한 저서로 문장이 간결하고 논리적이어서 참선 입문서로 널리 읽혔다. 서두와 권결(勸結)을 제외한 본문은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되어있다. 본지는 ‘깨달음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고 선언하는 지유 스님의 수심법문(修心法門)을 2회에 걸쳐 지상중계 한다.

소금이 짠 줄 알고 꿀이 단줄 아는 것이 깨달음
“있는 그대로 모두 옳으며 번뇌가 곧 보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과연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아름다운 배우자를 다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안심처(安心處)는 아닙니다. 돈과 명예, 권력과 아름다운 배우자를 모두 가진 천하장사도 죽음을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누구나 예외 없이 겪어야 한다는 것, 언제 부닥칠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죽음에 직면해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비롯한 그 어떤 사람이나 억만금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과정 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가 자기인 줄 알고 성형수술도 하고 온갖 치장도 하며 삽니다만, 죽어서 지수화풍(地水火風) 4대(大)로 흩어지기 시작하면 썩어가는 몸뚱아리에서는 구더기만 들끓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흩어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 이런 바탕에서 ‘아하, 마음을 깨달아야겠구나. 마음은 불생불멸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마음은 끝없는 과거부터 한번도 태어난 바 없고 죽은 바도 없는 불생불멸의 존재이므로 자신의 마음자리를 완전하게 깨달으면 생사에서 벗어납니다.

범부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가장 가까운 존재인 육신이 늙고 병드니까 자기도 늙고 병들어 결국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죽은 자에게 이 문제에 관해 물어 보려고 해도 죽은 자와는 통화가 안되니 알 길이 없군요.

삼계 속에서 윤회하는 고통은 마치 ‘불타는 집(火宅)’과 같아서 하루속히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를 구하는 것이 긴요한데, 부처란 곧 본래마음이니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있다고 믿는다면 무량겁을 지나도록 장좌불와하거나, 하루 한 때만 식사하거나, 몸을 태우거나, 피를 뽑아 경(經)을 베끼는 등 온갖 고행을 해도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옛적에 이견왕이 바라제존자에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존자가 “성품을 보면 부처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왕이 다시 “성품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묻자, 존자는 “성품은 작용하는데 있습니다”하고 답했습니다.

왕은 이어 “만일 작용할 때는 몇 군데에 나타납니까?”라고 묻자, 존자가 대답했습니다.

“태(胎)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세상에 처하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으면 본다고 하고, 귀에 있으면 듣는다고 하고, 코에 있으면 냄새 맡는다고 하고, 혀에 있으면 말을 하고, 손에 있으면 쥐고, 다리에 있으면 움직여 달리니, 나타나면 모래 수효만큼 많은 세계를 두루 싸고, 거두어 들이면 한 작은 티끌 속에 있으니 아는 사람은 이것이 불성(佛性)인 줄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정혼(精魂)이라고 합니다.”

왕이 이 법문을 듣고 마음이 열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 어떤 스님이 귀종 화상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화상이 답하기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해 주고자 하나 믿지 않을까 걱정이다.”

스님이 말하기를 “화상의 정성스러운 가르침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하자, 화상은 “바로 너니라”하고 단언했습니다.

스님이 “어떻게 보임(保任)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화상은 “한 티끌이라도 눈에 있으면 공화(空華)가 어지러이 떨어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끝에 스님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사용하면서도 이 마음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고, 잠 오는 줄 아는 바로 이것인데 말입니다. 임제 스님은 눈앞에 또렷하게 홀로 밝으면서도 모양 없는 자가 있는 바, 이것이 법인(法印)이며 본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래마음이 늘 우리와 함께 있는데도 이를 보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갖추고 있는 불생불멸의 마음자리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망상(妄想)과 집착(執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짙은 안개가 끼면 눈앞의 산과 물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망상 · 번뇌를 모두 놓아버리면 단박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닫고 보면 본래성불입니다. 안개가 걷히면 본래 그 자리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지 새로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해서 차츰차츰 부처의 지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내가 부처임을 단박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오(頓悟)입니다. ‘본래 그 속에서 행주좌와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었구나’ ‘아깝다. 매일 차(茶)를 마시면서 차 마시는 줄 모르고 있었구나’ 하고 빙긋이 웃게 됩니다.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고, 차가우면 차가운 줄 알며, 아프면 아픈 줄 알고, 가려우면 가려운 줄 아는 이것 외에 없습니다.

이런 간단한 이치를 일러 줘도 믿지 않으니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오히려 선지식을 비방하고 욕하다가 그 과보로 3악도에 떨어지게 되니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맞게 8만4천의 방편 법문을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스님들은 믿거나 말거나 비방하거나 말거나 ‘직지인심 견성성불’하는 핵심을 바로 일러주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죽도록 노력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깨달음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늘로 허벅지를 찔렀을 때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자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머리 좋고 나쁜 것이나, 수학을 잘 하고 못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깨달음과 신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흔히들 깨달으면 온갖 신통을 갖춘 비범한 인물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깨닫는다고 특별히 다른 자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키 작은 사람이 깨닫는다고 해서 키 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작은 눈을 가진 사람이 깨닫는다고 해서 갑자기 눈이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금에서 단 맛 나도록 만드는 것이 깨달음일까요? 소금이 짠 줄 알고 꿀이 단 줄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불법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짜고 꿀이 단 것을 공부해서 아는 것입니까? 일상에서 경험하는 소리나 빛깔, 냄새, 맛 등이 모두 진리 아님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 들이려는 취사(取捨) 분별심 때문에 도(道)속에 있으면서도 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물속에 있으면서도 물맛을 모르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오매일여(寤寐一如)를 위해 늘 화두나 염불같은 수행방편을 들고 있습니다.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할까요? 또한 깨달은 자의 생활은 어떠할까요? 깨달은 자들도 범부들과 똑같이 배고플 때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남여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통상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 ”카필라” 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 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매우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뉴벅” 사용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며, 스님께는 승복색상에 맞추어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청하고 있다. 또한”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것이 독특하다. 성불화 ”카필라”는 남여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레저, 등산엔 **아이젠 트래킹화!**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목·기관지가 불편할때

도라지 진액 상쾌 출시!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환절기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더덕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반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하면 된다. 가격은 종전 판매가130,000원에서 100셋트 한정 99,000원에 특별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내용량 : 110g×3병

(주)고려한방제약
문의 1566-1940
농협 483-02-192611 전정호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찬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